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나와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주관 충현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장: 조선근

은총으로 마친 제1회 전국목회자세미나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된 교회의 사명
부활의 빛 안에서 성취될 교회의 승리

“수 고하시는 모습이 역력해서 감 수 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 고, 총현교회의 이러한 수고와 섬김이 우리 목사를,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다준다고 확신합니다.” “참가비 없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 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강의를 우리만 듣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가한 교역자들의 말이다.(전체 프로그램에 비해서 참가비가 너무 저렴하여 미안하다고 말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물론, 강의 내용이 본인의 기대와 좀 달 라서 다른 측면에서 건전한 교역자들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강의 내용 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차기 세미나에도 참가하고 싶 다는 뜻을 전했다.

단기적 교회성장을 목표로 하는 세미 나들이 흥수를 이루고 있는 시기에, 건 전한 신학적 기반 위에서 말씀 중심의 강의로 복음의 능력과 그에 따른 교회 사명의 원칙을 천명하는 세미나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복음의 구체적인 근거와 교 회의 진정한 사명을 밝힌 금번 제1회 전 국목회자세미나의 의미와 중요성이 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유쾌적 세미나와

성격을 달리하는 이 세미나에 먼 거리 에서부터 2백여 교역자들이 신청하여 끝까지 경청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참가자들 중 다수는 앞으로도 성경 중심의 강의를 지속되기를 기대하 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 현장에 어 떻게 뿌리내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까지 강의가 확대되길 바라는 뜻을 기대한다 는 말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총현의 성도들은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서 복음 중심으로 거듭나 참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을 쉬 지 말아야 하였다. 그리고 금번 세미나 에 참가했던 모든 목회자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말씀을 세우고 진정한 성경적 리더십을 회복해가는 은총 속에서 사역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늦추지 말아야 하였다.

한편, 제2회 전국목회자세미나는 8월 중에 ‘성경의 회복: 성경 해석과 복음적 설교’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강 사는 미국 리플드신학원의 리처드 프렛과 웨스트민스터신학원의 리처드 크레 이븐으로 내정되어 있다.



'99 교육훈련원 성경·선교·전도

오늘 찬양예배를 개강예배로

열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기대

성경연구원과 선교연구원, 그리고 전도훈련원이 오는 찬양예 배시 드려지는 개강예배로 일제 히 시작된다.

각 과정의 강의는 성경연구원은 3월 2일(화)부터, 선교연구원은 3월 6일(토)부터, 그리고 총현 전도대원을 양성하는 전도훈련 원은 3월 3일(수)부터 시작된다.

한편, 총현전도는 지난 2월 25일(목) 오후에 전도대원 및 만 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지 면서, 전도훈련원을 통해서 헌신된 전 도대원들이 많이 양성되어 총현교회 각 부서에서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 도하였다(사:전). 전도훈련원의 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주차	전도의 의의
2주차	전도의 내용
3주차	전도의 의미와 내용
4주차	전도의 구체적 방법
5주차	전도실습 I
6주차	전도의 실제적 문제
7주차	전도실습 II
8주차	전도실습 III 및 수료식

목사·장로 기도회

3월 1일 총현기도원

우리 교회 전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하는 '99 목사·장로 기도회가 3월 1일 (월) 총현기도원에서 진행됐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이끌어가는 참 지도자상을 정립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으로 일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기 위해 가지는 금번 기도회는 교회와 나라, 개 인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지도자상에 대한 특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율령목 목사(구약에 나타난 지도자상)와 박형용 목사(신약에 나타 난 지도자상)이다. 성도들의 기도의 동 참이 요청된다.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본교회 소속 전 새례교인 들은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 시어 공동의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999년 3월 7일(다음주일)
찬양예배 후
장소: 본당
안건: '99년도 장로·집사·권사 선거를 위한 계획 및 당회위원장

'99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

오늘 찬양예배시 거행

오늘 찬양예배시에는 99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이 거행된다.

지난 세 주간에 걸쳐 교육 및 문답을 받고 오는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개종을 받게 되는 성도들은 총 202명이다. 성도들은 이들의 가족과 더불어 이 들이 맞은 특별한 날을 진심으로 축하 하면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 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 겠다.

작은 사랑의 모임

3월 2일 만나홀, 17교구

17교구는 3월 2일(화) 작은 사랑의 모 임을 통해 교구총동원 및 단합대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이 시간에는 각 지역 및 전도회별로 일꾼들을 소개하고 99년도 사역을 소개 하되, 특히 농어촌 교회 지원 사역 및 3 월 중에 진행될 한사랑 장애인마를 봉 사 및 외국인 근로자 사역 등을 집중 논 의하기로 하였다.

3월의 주요 행사

1일 목사·장로 기도회
7일 성찬식,공동의회
8-10일 교역자 수련회
9일 지휘자·반주자 훈련
14일 상반기 장학금 지급
28일 종려주일,공동의회
29-4월 2일 고난주간

3월 기도원 담당

정갑진 목사



김창인 목사

히스기야 왕의 실수

(이사야 39:1-8)

“모든 일이 잘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욱 겸손해져야지
교만하거나 경솔하면 후손에게 저주를 물려 주게 됩니다.”

1. 교만해진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 군에게서 구원을 얻고 또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후에 여러 나라들로부터 많은 예물들을 받게 되었습니다(1절). 또 예루살렘의 돈 많은 부자들과 백성도 왕에게 예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이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창고에는 은금보화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합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더욱 겸손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잘 살게 되고 명제가 높아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세력이 당당해졌을 때에 그만 실수를 하였습니까?

2. 교만으로 인한 실수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경솔해집니다. 히스기야 왕은 경솔하여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요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2절)

구경을 시키려던 관왕이나 시킨지니, 하나님의 성전 구경을 시키려던 “이런 데 우리가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신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십시오”라고 권도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영광한 새 자기를 자랑하였습니다.

첫째로, 무기고를 보여 주어 국방력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군대와 무기는 이러합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자기네의 군대로 앗수르를 이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군대를 자랑합니까? 이것이 자기를 나타내려는 것이니,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국가의 재산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금과 은이 이만큼 있고, 그밖에 은은 보배들이 이만큼 있습니다”라며 여러척의 나라의 금비 재산과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들의 재산까지 구경을 시켰습니다.

셋째로, 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는 전능하신 자아 보며도 감히 누가 손만 수가 있습니까?”라면서 자기네의 지혜와 모략을 자랑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자들에게 구경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나라

의 경치를 소개한 것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으로 국방력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3. 하나님의 책망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왔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물으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3, 4절)

“임금님, 어느 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까?” “예, 먼 나라인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만한입니다. “저 멀리 바벨론의 왕이 이렇게 먼 곳을 불사하고 나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라는 식입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는 이사야 선지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사자들이 다나 갔는데 무엇을 보고 왔으며 무엇을 하였고 하였습니까?” “예, 그 나라의 왕이 친히 쓴 편지와 또 값진 예물을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물만 바치고 그대로 갔습니까? 무슨 구경을 하고 갔습니까?” “아, 구경했지요” 무엇을 구경시켰습니까? “예, 우리 나라의 무기도 좀 보여 주고 재산도 좀 보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흥분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청진벽력 같은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만군의 여호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를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5, 6절)

“왕이여, 바벨론이 왕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예물을 바친 것에 정신이 빠져서 이 나라의 국방력을 보여 주고 재산을 공개시켰으니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 나라에서 본 모든 은금보배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의 나라로 옮겨 가는 날이 오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습니다”(7절)

“또 왕의 자손 가운데는 바벨론에 불

들러 가서 그 나라에서 환관이 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여 유다가 망하겠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론과 여호와와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고 하니라”(8절).

이 말씀이 있은 후 백 년이 지나서 시디기아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대하 36:11-21).

4. 배워야 할 교훈

첫째로, 어렵고 큰 일을 감당하여 성공했을 때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큰 일을 잘 처리하여 성공하고 나면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그럴 때일수록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잠 16:18). 어려운 일을 승리로 끝내고 힘든 일을 성공으로 밟은 후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식을 때려 겸손케 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승리하고 즐거운 일을 만날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의논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의논하였던 것처럼 즐거움이 생겼을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와 의논하는 것이 옳았나니 그렇게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패망이 왔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든 또 한 하나님의 종과 의논하였으면 기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종과 의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셋째로, 큰 일에 이긴 자가 작은 일을 경솔히 여기는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고 업신여기다가 실패하면 안됩니다. “큰 일을 내가 다 하였는데, 요가짓 잘 내가 못해?” 이런 자세가 잘못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쳐부수고 큰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일이성을 점령하러 할 때에 “요것쯤이야, 많은 군대가 걸고 갔고 한 3천명 정도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을 쫓아 주자”하면서 3천명의 군사를 출몰하여 보내었다 그리고 그를 점령할 때에는 이스라엘

이 손가락 하나 다친 자가 없이 정복했으나 이 작은 아이 성에서는 여지없이 패하고 첫날에 36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큰 일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둘째로, 큰 일을 만나도 있는 힘을 다해야 하고 작은 일을 만나도 있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큰 일에는 힘을 다하고 작은 일에는 “요가짓” 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큰 일에도 충성된, 작은 일에도 충성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히스기야 왕이 보여 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잠깐 실수가 자손에게 무슨 화를 물려 주었습니다. 바벨론의 사신이 예루살렘에 가 보니까 은금보배가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임금님, 그것들을 우리가 가져 빼앗아 옵시다” 원수에게 자기네 국방력(군인과 무기)을 모두 보여 주었으니 어찌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바벨론은 하나님께의 원수 나라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 나라와 동맹한 줄 압니다. 바벨론 왕이 신하를 보내어 “우리와 동맹합니다.” “그저 편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해석자들 중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대에 바벨론과 동맹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복을 받으니 히스기야 왕의 원수 나라와 동맹을 한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은 당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과 적한 것이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세상과 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5. 결론

모든 일이 잘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욱 겸손해져야지 교만하거나 경솔하면 후손에게 저주를 물려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어리석은 실수와 자손에게 물려준 악영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배웠습니다. 자와 여는 본 자신도 망신하지 말고 자손에게도 화를 물려 주지 말고 자신도 영광을 누리려 자손들에게도 복을 물려 주어야 하였습니다. **■**



김성록 목사

성찬 (고린도전서 11:23-26)

“...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

천국의 약속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요 14:3). 이 세 가지의 약속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미래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행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와이를 제일로 꼽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하와이에 가서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친히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와서 함께 하와이를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같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 친구는 틀림없는 천국으로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썩 좋아지지 않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타고 승천하실 때, 두 천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개인적이며 가시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천사들뿐 아니라 사도들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대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집에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속주저 나오는 기쁨을 어떻게 억누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여러분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확실성

이와같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거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도 진실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도 거짓 증거가 되며, 크리스천들의 믿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며,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고전 15:13-18).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에 있는 우리들은 숨길 수 없는 중한 한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이제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 전할 주의 죽음

이 놀라운 약속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은택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곧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주시며

들여야 할 영원한 약속은 바로 복음의 약속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 흘림이 많은 죄 사함은 없느니라”(히 9:22). 우리 시대에 도 동물의 피를 뿌리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돈으로 깨끗케 할 수 있었습니까? 죄는 우리의 재산이나 명예 또는 인기 같은 세상의 썩어지거는 것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 시민에게 있어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여라 아멘”(계 1:7).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복의 본질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크리스천은 빛에 거함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함은 우리와 서로 사모이 되며 그 아들 예수와 피가 우리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성찬을 하늘의 잔지로

오늘의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게 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으며 십자가의 한미를 부끄러워 합니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에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 하늘의 잔치가 되도록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형용 못할 은혜 앞에 겸손히 나와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

이 놀라운 약속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은택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재림의 날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이생뿐이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고전 15:52-53)

우리의 고향 영원한 집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이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건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의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얻으시라”(고전 15:55, 57-58). 바울은 부활에 대한 부동의 믿음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이 위대한 믿음을 안

받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고전 11:23-25). 언제까지 이 예식을 행해야 합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임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26절).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행해야 합니다. 전 역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식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헌신, 완전한 순종, 그것을 통한 죄 사함을 기억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성찬의 복음

이 순간,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재림의 날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과 환경은 항상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불

제1회 전국목회자세미나

제1회 전국목회자 세미나 -- Seminar for All Pastors in Korea

'현대교회: 복음과 리더십의 회복'

제1회 전국목회자세미나를 인도하신

하 · 나 · 님 · 감 · 사 · 합 · 니 · 다

“세상이 다원화될수록 더욱 붙들어야 할 복음
그리스도 안의 교회가 지닐 거룩의 본질과 선교적 사명 드러내”



△ 참석자들은 끝까지 남아 폐회예배 및 수료식에 참석하는 열심을 보여주었다. 한 참석자가 수료증을 받고 있다.

제1회 전국목회자세미나가 순회 가운데 끝났다. 모든 진행부와 섬기는 성도들의 진실한 기쁨의 봉사를 통해 그야말로 ‘만민하여 산을 이루는’ 은총이 임했다.

90년대는 가히 ‘세미나 홍수기’라고 할 만큼 온갖 종류의 세미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는 시기다. 이는 교회 성장이 주춤해지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이동하는 교인들이 급증하면서 생긴 위기에 대한 반영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목회방식이 21세기를 대다르는 다문화 사회와 다원적 가치체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현실적 반성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흐름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다수 세미나들은 단기적 효과와 치방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여,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사실, 현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을 위한 목회적 방법론’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능력의 회복’이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재림의 빛 안에서 세워지는 성도와 교회의 사명 회복’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 세미나의 중요성이 있었다.



△ 학사보고후, 참가자 대표가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답사를 하고 있다.



△ 개회예배에서 본교의 목사장준은 특별찬양을 드렸다.

리더십에 대한 감사 인터뷰

진정한 리더십은
‘지금도 살아 있는’
복음 안에서 발견

P. 엔스 박사

“금번 세미나의 주제가 복음과 리더십의 회복입니다. 이 중에서 리더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리더십의 부정적인 문제는 ‘자기중심성’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인간의 본성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문화속에서도 형성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안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찾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의 리더십’이요, 곧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라가는 리더십입니다. 교회를 사임 제처럼 생각하는 경향 속에서는 이러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인 우리는 복음이 과거 위대한 신앙선배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우상화와 교만을 떨쳐내야

T. 룬넬 박사

“리더십에 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리더십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우상화와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결미 하심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놓여있는 덫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순간 주님께로 돌이켜 사하심을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적지않은 리더의 모범을 찾을 수 있겠지요. 최종적으로 이 모든 리더십은 우리 예수님께로 귀속된다고 봅니다.

최근, 한국사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인해, 저는 이러한 아픔이 인생의 전리를 발견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와와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원칙과 원리에
충실한 강의를 감사

이 중 수

(분당 구미남교회 담임목사)



저는 한 기독교잡지에 나온 광고를 보고 지회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현장에서 여러 상황들을 처리하다보면 성경적인 원칙과 원리를 놓치게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일깨움을 받고싶어서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실제로 강의를 들어보니 너무너무 제 기대에 부응하는 면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일단 본문 해석에 충실하면서도 언약사상의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진행되는데 강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의 반응이 평신도들과는 달리 좀 차분하고 정적어서 강의가 쉽지 않았을텐데 강사들이 상황에 매이지 않고, 또 불평같은 것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모습을 배워하고 차분하게 알찬 강의를 해주신 것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과 태도가 인상깊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질의 응답시간이 좀 충분치 있어서 수강자들의 세부적인 궁금증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세미나부터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 시작시간이 조금만 늦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 참가자 소감

예수님의 빛 안에서
발견한 교회 사명

김 덕 연

(영원 새중앙교회 담임목사)



저는 충청교회 전도위원회의 배려와 초청하심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구약성경에서 가르치는 원칙들이 현대에 어떤 적실성을 가질 수 있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강사들의 강의를 통해 성경의 원칙과 실재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들은 현대 교회의 역할을 너무 신약적인 관점에서만 다뤄 왔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대 교회가 구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대한 윤곽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목회자가 평신도들에게 이 귀한 강의를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평신도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한 목회적 교육’이라는 면이 좀 더 부각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강사들과 충청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목회자 세미나의 아름다운 결실에는 기쁨과 감사로 섬긴 성도들의 헌신이 큰 몫을 담당했다.



복음 · 교회 · 리더십

구약의 교회: 출19장을 중심으로

P. 앤스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원 구약신학 교수)



"교회는 구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의 대로서 순결을 지키고, 선교적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신약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회의 뿌리는 이미 구약에 놓여있다. 구약의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구절은 출19장이다. 출19장의 뿌리는 출애굽이며, 출애굽의 뿌리는 구약 족장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으셨던 언약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은총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했다. 이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건지신 그들을 자신의 귀한 소유로,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세계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 곧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선교적 존재로서 부름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선교적 존재로서의 부름받음은 이미 아브라함(창 12:1-3)과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누웠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담 이후 이스라엘은 이 중대한 사명을 실패했다. 그렇다고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구약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도구로서, 선교적 존재

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의 이 사명이 참 요망된 곳은 바로 뻗은 2:4-10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제, 우리들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자기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현대 교회를 향한 다니엘의 복음 메시지

T. 통맨 박사

(웨스트민스터대학 구약신학 교수)



"현대 교회는 바벨론의 우상과 문화로 부수고 일어서는 그리스도 부활의 빛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우상문화가 만들어놓은 엄청난 난 역압의 구조와 그것을 뚫고 일어서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이 땅의 통치세력과 억압구조의 힘은 실패로 위망적이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가장 실재적인 통치자이시다. 폭풍물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교회를 의롭게 만드셨다. 그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안에서 하나님 통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 주신다.

리더십

김성찬 위임목사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리더십이 요구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에도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교회 지도자 리더십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세미나의 내용은 세상적 리더십을 모방하는 데에 머무르고 있다.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상은 능력과 타이틀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리더십의 문제를 생각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문제로부터 다루어야 한다. 우리 중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는 모든 인간관계 뿐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을 왜곡시키는 뿌리이다. 그런데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주여 나는 아무 것도 아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의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깊이 고백했다. 그러면서 빌 2:15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형으로서, 자기를 비우고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소개했다. 바로 여기, 예수님의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리더십이 생긴다.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여야 하기 때문이다(마 20:28). 이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와 리더십

윤영탁 목사(장년2부)

구약의 지도자인 선지자는 사람이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뽑아 세우셨다. 따라서 이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다. 포로 귀환 후 제2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 사역을 위해 선



발된 지도자는 학계와 스가라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들은 신실한 대언자로, 죄의 책망자로, 결단을 요망하는 자로, 위로자로 말씀을 전하고 친히 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종말론적 심판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메시아를 내다보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이야말로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본이 될만한 지도자들이었다. 이 시대에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에베소서를 통해 본 복음과 교회

박형용 목사(장년1부)



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귀 등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전부를 포함한다.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세상중속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예수님과 연합되는 은총을 힘입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 요한 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이 등장한다. 곧 기쁨과 말씀 중심성, 거룩과 선교, 일치와 사랑 등이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신약교회가 설립된 후 나타난 특징과 그대로 일치할 뿐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전하는 교회의 본질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아시아 교회의 근본문제

노봉린 목사(영어예배부)

아시아인 대다수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택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현실적이고 영적인 상황은 날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반면, 이 지역에 어둡사리 세워진 교회들조차 진정한 리더를 찾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말씀을 바르게 인도자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교회는 목회자전교를 포함하여 젊은이들과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광범한 신앙갱신과 선교운동 시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선교현지의 원주민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급이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부도님을 구원하신 하나님

신 재 금(원사, 15교구)



주께서 내게 연초에 주신이 완전한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기에 그 사랑 외치고 싶고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쓴다.

"주님! 부모님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를 둔 가정과 부모님 연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을 얼마나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던가 ... 두 분의 연세가 칠십을 넘고 보니 너무나 초조해지고 이대로 부름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 예배때나 새벽기도회때나 기도시간마다 부모님의 이름을 넣어 "그 이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해 주소서" 하며 때로는 통곡하는 심정으로 기도해 왔다.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매 주님의 예비하신 날에 주께서 그

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15년 기도해 응답을 주신 것이다.

그 동안에 들었던 모든 말들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스쳐갔다. "너나 믿어라. 난 이래로 살았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지? 착하게 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아들도 안믿는데 아들 따라 가자지. 꼭 예수만 믿어야 한다!" 그 말이 너무나 소리에!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더 나빠요."

서울에 오시면 교회 가자는 소리 듣기 싫으니 잘 오시지도 않으셨다. 오랜 우상으로 켜들어 눈과 귀가 막혀 도무지 복음이 안 통하는 분들이었다.

을 연초에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동생과 고향집을 찾았다. 이제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동생과 난 서로 오랜만에 친정에서 잠을 자며 부모님을 설득했다. 우리는 너무 간절했다.

"아버지,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엄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데 ..."

"예수 믿는 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젠저 두 분이 가만히 듣고 계셨다. 세상적으로 잘나갈 때에겐 되지도 않은 소리라고 듣지도 아니하시던 우리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다음날 목사님을 모셔다 예배 드리지

15년간의 기도해 응답하신 하나님
주님 예비하신 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제 다니기로 했으니 잘 다니며, 걱정마라."

하나 두 분이 아무 말씀도 안하셨다. 이른날 아침 동생과 세 가정을 심방하고 와보니 집에만 계시겠다고 하시던 아버지는 늦게 돌아오시고 하시며 나가시고 어머니만 계셨다. 오후엔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몰라 동생과 나는 마음을 조려가며 초조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기다렸다.

4시에 아버지께서 돌아오셨다. 친정 근처의 교회 목사님께 미리 말씀드리 갔기에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내외분과 장로님이 오셨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께서 "어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러 보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기도할 때 따님처럼 아멘 하시

요" 단정한 몸자림으로 무릎 꿇고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그 모습, 하늘에서 구원 받는 성도를 위하여 울리는 찬양의 멜로디가 들리는 것 같았다. 우

상과 악한 원수 마귀의 간계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어코 승리를 주셨다. 주일인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가 기쁨의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

작별 인사를 하고 올라올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다니기로 했으니 잘 다니며, 걱정마라."

주님! 감사해요. 여기고성과 같이 단단하던 부모님의 마음을 허물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믿음의 가정

예수님을 가장(家長)으로

양 인 석(대학부, 5교구)

한 때 형과 많이 싸웠었다. 하루는 무슨 일로 치고 막고 한바탕 싸움을 벌인 후, 형과 나는 어머니 앞에 꿇어앉았다. 어머니는 우리를 앉혀 놓고서도 영영 우셨다. 우리는 항상 강해 보이신 어머니가 저렇게 우시는 것을 보고 저절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엄마를 감사하며 살아왔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엄마 아빠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래도 하나님이나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살아왔어. 내 아버지 돌아간 후 엄마가 사는 건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첫째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신을 행하며 사는 것,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자꾸 엄마 실망시킬거냐? 어머니께서 믿지 주사를 맞고 며칠이고 강강 뒤흔을 때도 볼 수 없던 눈물이었어. 엄마의 눈물은 어린 나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어. 어머니께서 신앙 안에서 우리 형제를 키우셨다. 기도와 믿음 안에서 성장한 우리는 요즘도 어머니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다.



우리 가족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정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다

"네는 언제 그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주님께 대한 비전을 가진 형은 이달 말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간다. 단순히 지식만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광대한 땅을 가슴에 품고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다. 아직은 하나님

을 믿는 것이 불법인 나라, 예수님을 말하면 공안에게 잡히는 이 신앙의 불모지에는 형은 건다. 믿음으로.

나는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에 대한 꿈을 가졌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소위 대중문화 - 담배와 술, 그곳엔 이성관을 가지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모습, 지식만이 존재하는 방향을 잃은 학문들 - 을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그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도 없음을 체험했다. 이번엔 한통대 언론정보문화학부에 편입을 하게 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다. "충심 찾기"와 "세상에 뿌리대리기"이다. 특히 잘못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세우기 위해 스스로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 무장하고 훈련할 것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파워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한다.

우리 가족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정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다. "신교, 교육, 구제"의 3대 목표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복음의 사역이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도 주셨다. 또 앞으로 더 다가올 시련들이 우리를 엄습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좌우에 날 선 검과 같이 강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신앙가정부 기술수련회 마지막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 감사

정준홍, 박정운 부부

몇 주 전부터 겨울수련회에 대한 광고를 보면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수련회를 기다렸지만 늘 피곤에 지쳐서 가기 싫다며 쉬자는 남편을 애교+협박으로 달래서 교회로 가다가 담임선생님이셔서 늘 좋은 기억만 남기고 떠나 줄거라 마음으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부부와 경제생활"이라는 주제에 목사님의 말씀으로 교회예배를 드렸는데 말씀 중에서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물질을 사용할 때 청지기 자세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깊이 남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이제껏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 일에 대한 회개 기도로 같이 드렸습니다. 공동체훈련을 통하여 여전한 젊음을 과시하면서 열심을 다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고 울음을 하면서 구구단을 어떻게 외운 남편도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기도회 시간에서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수련회 둘째날 차신드 장로님께서 "성경적 가정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신 때 남편은 이제부터 십일조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약속을 하였고 또 노동관도 피곤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즐겁게 일해야 된다는 축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참석한 춘천교회 수련회 기간이 너무 좋았고 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쉬운 점은 좋은 수련회와 시간이 너무 짧았고 많은 부부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또 여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벌써 여름수련회를 기다립니다.



선교

예수! 오직 구원 국내외국인선교부 제1회 겨울수련회 가져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수련회가 실시됐다. '복음을 살자!'라는 주제로 교회와 기도원에서 실시된 이번 수련회에는 외국인 근로자 72명과 선교위원 44명 등 총 116명이 참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첫날 주일 집회로 시작된 이번 수련회는 저녁 찬양에 배 찬양 주기도원으로 강소를 옮겨 계속됐다. 선교위원 회 이숙수 목사를 주강사로, 로마서 10장 10절을 주제 성경으로 실시된 이 수련회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외국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를 얻었다.

찬송가를 선별해 각국 언어 또는 한국어로 찬양을 했으며, 중국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몽골어 등 성교 말씀을 통역했다. 성경 공부 시간에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했으며, 나라별 기도회와 결단

△ 김성관 위원장의 영어설교를 통역자들이 각 나라 언어로 통역하고 있다. 모든 외국인 형제의 마음이 집중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왼쪽부터 안두현(중국어), 기미나(스리랑카어), 숙희(몽골어).

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둘째날 오전에 각 나라 말로 된 '예수' 영화를 볼 때는 모두가 진지하게 시청했으며, 파키스탄 형제들은 예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천국행리 시간에는 선교위원과 외국인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유쾌한 시간이었으며, 아침 제초 시간 역시 친교를 위한 유익한 순서가 되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은 선교 위원들이 교사로,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수고했으며, 김성관 위원목사를 비롯해 여러 명의 성도들이 기도원을 방문, 수련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겨울수련회는 준비 과정에서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행사 기간이 설 연휴였던 관계로 봉사할 분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넘치는 일꾼들을 보내 주셨고, 참가자 모두가 선교 사역의 의지를 굳게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몽골팀에는 난생 처음 교회에 온 형제들이 많아 통역에 애로가 있었다. 특히 교회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몇몇 형제들이 첫하루를 보내 다음날에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때는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새벽 예배와 성경공부, '예수' 영화 시청 등의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수련회 끝날까지 함께했고, 결국 그들은 수련회 후 주일에도 모두 국내외국인 선교부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의 가장 커다란 열적 싸움은 바로 방글라데시팀이었다. 여섯 명이 참가한 방글라데시 형제들은 수련회 둘째날 새벽 사소한 이유로 집단으로 기도원을 나가 버렸다. 그해 막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모슬렘들의 마음을 약한 영이 선동한 것이다. 뜻밖의 사건에 방글라데시 교사들은 그날 급식하며 울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그날 저녁 세 명의 교사가 수지대에 있는 방글라데시 형제들 속소를 방문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속소에 자기들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얘기로는 자기들이 새벽에 기도원을 무단으로 나온 후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파 몇 차례나 토하기도 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들이 분위기를 망치고 싶었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싫었다고 했다. 결국 그날 저녁 방글라데시 형제들은 다시 기도원으로 돌아왔고, 그 사건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가다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태평양선교전도사)

지체들 소식

영아부
구원열차 타러 영아부실로 모이세요!
영아부는 천국 잔치인 성경학교를 맞으며 또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난 2월 22일(월요일) 예배설교를 예쁘게 단장했다. 구원열차를 타며 즐거워하는 아가들의 모습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를 연 나뭇가 달스럽게 장식되었다. 그 속에 작고 작은 교회가 있고 그 길에는 꽃들이 웃고 있고 오색찬란한 봄들이 함께하며 동그란 기구를 타며 즐거워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 이러한 작품을 만드는 데 선생님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다. 선생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송태경 통신원)

중등2부
겨울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난 겨울수련회
중등2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란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실시하였다. "없는 산 속 용달"이라는 부가문 살아가는 행로를 메고 산을 올라가 봄으로써 끝고다 언덕 고산을 상하게 보고 언어이 자신들의 허물을 기록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불타는 봄으로 회개, 용서, 구원 확신의 시간을 가졌다. 또 팀을 구성활동으로 구성된 '선명목장' 시간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문화적인 분야를 예수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기

도합수' 시간에는 수련회의 순간순간을 학생들 물려 비디오에 담아 상영했는데 학생들은 카메라에 물려 비춰진 자신들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발을 구르며 웃기도 하고 숙연한 반성을 하기도 하였다. 부흥회 시간을 통해 지도 목사님은 한 주전까지 물려 매 마시할 만큼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 중등2부 가족의 영혼을 뒤흔들고 가슴엔 예수 사랑의 뜨거운 불씨를 심어 놓았다. (김성관 통신원)

청년1부
3월 1일, 팀별수련회
청년1부 3월 1일, 각 팀별수련회를 갖는다. 대그룹으로 모이는 전체집회, 소그룹으로 모이는 GBS에서 소그룹에서는 부분을 강화하고 보충하기 위해 중등2부 단위의 팀별 모임으로 팀수련회를 마련한 것이다. 한 팀은 6명으로 교사 3명과 1명의 열매, 5명의 조장이 중심이 되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게 된다고 지도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동안 전체모임과 소그룹 강화를 힘써온 청년1부는 이제 도약의 발판으로 팀수련회를 실시, 보다 집합한 교제 안에서 급진도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게 될 것이다. (정희경 통신원)

1교구
끝까지 믿음의 본 보여 주신 권사님
'새벽을 지키는 기도'의 어머니'이

란 주제로 주간찬양의 한 부분에서 될 수 있었던 3분 권사님 중 한 분인 김옥에 권사님이 소천하셨다. 새벽기도회에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고 83세이시에도 변함 없이 새벽기도를 사모하시는 권사님께 건강을 위해서 내일은 새벽기도를 쉬세요 라고 권사님에게 권고하셨다. 그러나 김옥에 권사님은 그날 새벽기도를 하시며 새벽기도를 드리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항상 단정하며 깨끗한 모습이었고 마지막까지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 간구하시며 권사님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여주었다. 같이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나누고 봉사를 하신던 많은 권사님들께서 하관을 지켜보셨으며 교구의 살롬찬양대의 찬양이 바람 타고 하늘나라 보좌에 상달되었으리라. 미처 주님을 영접치 못했던 가족들도 어머니의 소천하심을 보고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확신을 갖는다. (임흥태 통신원)

4교구
겨자씨 같은 남성도 구역에배
오랫동안 아내와 교회에 함께 다녔던 어느 누구와 한 마디 말도 전하지 않던 우리 남편들이었다. 집집마다 순서로 돌아가는 남성도 구역에배에 남편들은 부인의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석하였다. 집집마다 길고 긴기도의 열매를 보며 눈물샘을 감수되다. 남편들은 마음을 잘 알아 듣지 못하는 민망함과 낯설고 편안치 않은 교회의 분위기의

불편함을 털어 놓으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구역모임에 참석하기를 꺼려하던 남편들이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참여한다. 아직 막대한 남성도 구역에배이지만 남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경공부를 하며 기도하는 그날을 위해 위임되어 주님께 매달려 본다. (백종영 통신원)

14교구
새벽기도를 맞는 학생들처럼
올해도 두달이 지나갔다. 올해의 첫날 주일 앞에 결심한 것들을 잘 지켜가고 계시지요? 우리의 결심이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 학생들은 새 학년을 맞습니다. 다시 새로운 각오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14교구는 3월 1일(월)부터 6일(토)까지 교구전체 새벽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가리산의 문턱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 새벽예배를 쌓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엔 특별한 기회가 된 마음이 되어 본 교회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교구와 각 개인을 위해 함께 기도해 드리기를 하였습니다. 교구의 은 식구들이 적극 참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나 통신원)



교회 소식 / 목·정발행

● 알림

1. 장학금 / 오는 1, II, III, IV, V부에서 드립니다.
2. 성전식 안내 / 3월 7일(수요일) I, II, III, IV, V부에서 거행됩니다. 기도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새가족 환영회 / 오는 교육모임과 구분됩니다. 인도자들은 새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수화교실 개강예배 / 오는 15:00 교육관 109호에서 드립니다.
- 교로 화요일세례기도 / 3월 2일(화) 세례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월요일세례기도 / 3월 19일(월) 세례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 오는 15:00, 갈릴리움
4. 교구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30, 선교관 301호
5. 건축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30, 선교관 505호
6. 2교구 협의회 / 3월 2일(화) 18:00, 노아당
7. 설립인전도회 월례회 / 오는 16:00, 사랑부실
8. 설립인전도회 임원회 / 3월 23일(화) 18:30, 세영가든
9. 이·미움전도회 월례회 / 3월 3일(수) 1부예배 후, 설립인전도회실
10. 설립인전도회 목요일기도회 / 3월 4일(목) 세례기도 후, 설립인전도회실
11. 권사회 전체 임원 기도회 / 3월 3일(수) 1부예배 후, 교육관 107호

● 남친지도

1. 바울 4 / 오는 교육모임 후, 임야부실
2. 바울 12 / 오는 교육모임 후, 교육관 312호
3. 베드로 12 / 오는 교육모임 후, 교육관 314호
4. 베드로 15 / 오는 3부예배 후, 임야부실
5. 베드로 16 / 3월 7일(수요일) 교육모임 후, 영아부실
6. 루디아 / 3월 5일(금) 구역연합예배 후, 배다나눔
7. 마리아 / 3월 5일(금) 구역연합예배 후, 교육관 109호
8. 마리아 17 / 3월 4일(목) 09:30, 아담원 안보소영당

● 길론

1. 김동원 군(서우진 성도의 아들)과 김경희(김동혁 씨, 임원인 씨의 딸, 19교구) / 3월 19일(월) 15:00 갈릴리움
2. 김경현 군(김동혁 씨, 김광숙 씨의 아들)과 조미경 양(안경자 집사의 딸, 5교구) / 3월 19일(월) 13:00 노보텔 엠베서

다호명(강남) 2층 삼계인물

3. 허용구 전도사(허준명 집사, 이영애 집사의 아들, 3교구)와 홍수정 양(홍백기 집사, 황인숙 집사의 딸, 9교구) / 3월 4일(목) 13:00 갈릴리움
4. 손두열 군(손동환 씨, 박순득 씨의 아들)과 김효현 양(김정주 집사, 안영숙 집사의 딸, 19교구) / 3월 5일(금) 13:00 갈릴리움
5. 김다형 군(김기자 씨 성도, 이희경 집사의 아들)과 남혜자 양(남은희 성도, 정귀선 전도의 딸, 19교구) / 3월 6일(토) 13:00 갈릴리움

● 별세

1. 김윤애 권사(박문규 성도 모친, 1교구 역삼3구역) / 20일 별세, 22일 장례
2. 배금씨 권사(조성숙 성도 모친, 송정숙 권할 2호, 2교구 양지2구역) / 21일 별세, 23일 장례
3. 이기동 씨(장길라 성도 아들, 10교구 미아4구역) / 22일 별세, 24일 장례
4. 편은숙 권사(오숙희 집사 모친, 7교구 천호1구역) / 23일 별세, 25일 장례
5. 박정 집사(이상복 집사 부인, 1교구 역삼5구역) / 24일 별세, 26일 장례
6. 문성아 권사(이정희 집사 모친, 6교구 방이대구역) / 25일 별세, 26일 장례
7. 신득진 씨(임준씨 성도 남편, 6교구 가락마루2구역) / 25일 별세, 26일 장례

직원 모집

총회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물려 받은 교회를 섬기며 근무할 성실한 직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1. 자 격 - 5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자 세례교인
2. 근무지 - 경복직
3.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사진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4. 서류 제출처 및 문의 - 총회교회 사무국(전화: 552-8200 교환 402번)

● 3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 예배(장로)					천양 예배(민주실)		수요일 예배(권사)	
		I	II	III	IV	V	장로	권사	I	II
3월	7	허기동	김종구	오정현	김인관	이준석	박성원	안숙자	김기자	김기자
14	10	윤성철	이정호	정은숙	김영일	이희영	이희영	안숙자	김기자	김기자
21	18	차진득	김여운	조인재	안영옥	박기진	오정환	안숙자	김기자	김기자
28	25	이영희	김재명	박정희	송정숙	김단용	김정철	염미숙	김영옥	김영옥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인도자
289	박희운	4	청년부	이영선(19)	297	김재현	19	대학부	한현진(19)	305	성은경	19	청년1부	윤순희(1)
290	김도영	6	고등부	이은경(6)	298	김시원	19	대학부		306	김이진	19	청년1부	장정숙(3)
291	김대환	8	청년2부		299	이지영	19	대학부		307	김현철	19	대학부	장정숙(3)
292	안재현	12	루디아	안정현(12)	300	송지현	19	청년1부	최호일(15)	308	박수란	19	대학부	
293	황정덕	13	베드로	이보희(13)	301	사동환	19	청년1부		309	최미연	19	고등부	추희은(4)
294	최영선	15	루디아	김지혜(19)	302	김성철	12	청년1부	송은희(7)	310	손세석	19	고등부	
295	오동관	17	바울		303	김봉성	19	청년1부	김우형(7)					
296	박재현	17	청년2부	홍현희(14)	304	조동일	19	청년2부	홍혜선(11)					

※총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정발행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귀여운 소녀의 찬송 소리에 목메인 감격과 흥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차 신득(장로, 4교구, 감사위원장)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의 열기가 전과 다름을 많이 느낍니다. 예배시간은 물론 예배 전 찬양, 금요집회 시간 찬양 등 시간마다 찬양이 살아나 더욱은혜가 넘치는 기쁨을 맛보곤 합니다. 특히 주일 저녁 찬양예배를 보면 실로 찬양예배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얼마 전 예배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중 나도 모르게 어느 어린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귀에 들려움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유척원도 다나기 전일 것으로 보이는 귀여운 소녀가 어른들 사이에 서서 아주 또렷도란한 목소리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정성을 다하여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나는 목이 메어 부르지 못한 한 채 서서 아이의 찬송을 들으며 얼마나 마음 가득히 감격과 흥분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나이 많으니 할아버지 할머니나 다정한 남매가 나처럼 함께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모니터 화면을 통해 바라보게 될 때도 간간한 감동이 내 가슴에 다가오곤 합니다. 내가 부르는 찬송뿐 아니라 남이 열심히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서도 내 마음에 더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교회의 거대한과 찬양대의 양적인 규모도 도취되어 나 자신은 단지 감상자가 평가하는 자리에 불과나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공교히 연주하는 찬양대의 찬양이온 온 회중의 찬송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부르는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찬송도 하나님께 매우 기뻐하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마음을 다해 부르는 어린이를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과 함께 어린이를 통해서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월 7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4부예배

임미뉴얼여성찬양단

〈찬양곡목〉

- 일어나 찬양
- 주님께 주시는
- 생함과 같은 보혈은

● 3부예배

알토 배행자

(할렐루야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주님과 함께
- 마람 속의 주
- 복있는 사람들

● 5부예배

소프라노 주자 - 김서영

(할렐루야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귀하신 주여 날 돌리사
- 감사해
- 사랑의 그늘에 앉아
- 주님 나라 임하시네

총회 중보의 창

1 김장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

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함의 은사를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소서.

2 오늘 거행되는 학습·세례식에 참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게 하소서.

3 성경연구회와 선교연구회, 전도 훈련원 등 99년도 전반기 교육훈련원의 각 과정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4 3월 7일 거행되는 성찬식이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5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99년도 전반기 총회 소식장학생을 선발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천국일꾼을 양성하게 하소서.

6 내일 실시되는 목사·장로 기도회 거행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7 2월 22-24일에 진행될 제1회 전국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했던 모든 목회자들이 각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과 진정한 리더십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소서.

- 원로목사 김장민
- 위임장 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종석 김희숙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원주 전현종 김재철 이숙수 정갑신 정현민 조준환 조일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대 김진익 권상진 서광진 이순하 정혜성 조노현 이준경
- 협동목사 윤영락 박용환 노봉민
- 선교사 이준교 안석필 김경대
- 감동사 박기진 염연일
- 원로전도사 이두란 최순복
- 여전도사 정연희 현정갑 정영자 임태주 김경자 박옥민 최지혜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진우 오종국 오인숙 김옥숙 한영준 박종하 김명숙 김복순 최영란 김민석
- 교정전도사 박양림
- 교육전도사 한승일 김경희 송원석 김창중 조재민 허용구 이후한 김병수 이종대 김윤식 김일출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태영 이석현
- 원로선교사 유병애 김경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민 허요셉 김기영